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8월 9일 연중 제 19 주일						
오늘 복음(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은 지난주의 복음(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기에,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난 주 복음이 예수께서 허기진 이들을 위해 베푸신 기적이었다면, 오늘 복음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파도에 시달리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가신 시간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때로, 우리말 성경은 이 시간을 새벽이라고 한다. 새벽은 빛이 없어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곧 동이 트는 시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틀 녘을 하느님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때라고 믿었다. 오늘 복음에서 동틀 녘은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 마태오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상징하기도 한다.						
오늘 복음 속 제자들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로 오전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난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 캄캄한 밤중에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다. 게다가 거기는 낯선 이방인들의 땅이었다. 이 짧은 글에는 "유대인 뿐만 아니라 낯선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고생할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냥 보내셨을까?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예수님'과 '내 삶에서 직접 겪어본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남에게 들어서 아는 믿음, 책으로 배워서 아는 믿음은 평소엔 그럴듯해 보여도 거센 파도 한 번 치면 쉽게 무너진다. 나중에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3인칭 믿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걸 멀리서 구경하며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 제자들이 한계에 다다랐을 즈음, 곧 '새벽'에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다.						
거센 바람과 파도에 정신을 팔린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비명을 지른다. 어제 저녁에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눈앞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약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꾸짖는 대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다.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때 쓰셨던 "나는 곧 나다 (I am who am)"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אֶהְיֶה אֲשֶׁר אֶהְיֶה)"라는 하느님의 진짜 이름이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약한 이들에게 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때 베드로가 나선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 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다. 대단한 신앙의 묘기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 빠져들기 시작한다. 빠진 이유는 분명하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거친 파도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볼 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하다가도, 내 통장 잔고나 건강 검진 결과지를 바라보는 순간 “나 이제 죽었네.” 하며 기운이 빠져드는 것과 같다.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곤 한다. 그러나 오늘 독서와 복음은 바로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초대한다. 제1독서의 엘리야 이야기와 복음의 베드로 이야기는 깊은 닳은꼴이다.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당신을 만나도록 호렘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하느님의 초대는, 역풍에 시달리는 베드로를 향해 "오너라." 하고 물 위를 걸어오도록 부르신 예수님의 초대와 그대로 겹쳐진다.						
주님은 거친 돌풍이나 흔들리는 지진, 맹렬한 불길 같은 세상의 소란 속에 계시지 않았다. 모든 파도가 숨을 죽인 뒤 찾아온 잔잔한 미풍 속 작은 속삭임으로 당신 존재를 드러내셨듯,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호수의 풍랑은 비로소 잠잠해졌다.						
우리 삶의 바람이 거세질 때 필요한 것은 파도를 이겨낼 나의 완벽한 힘이 아니다.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께 손을 뻗는 겸손한 고백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상의 소음과 불안의 소용돌이 너머, 우리 마음의 잔잔한 미풍 속에서 나지막이 건네신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시간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봉헌	보편 지향 기도
26년 8/9	9시	현재영(바오로)	김양균(아네스)	현동숙(소피아)		박춘자(아가다)
	11시	이관복(바오로)	심묘현(안젤라)	박만석(마누엘)		이영(레오) 이관숙(마리아)
26년 8/16	9시	이신애(율리안나)	김주영(이냐시오)	백진주(에밀리아나)		이춘자(희순루시아)
	11시	황정순(크리스티나)	이향례(자넷)	임기홍(스테파노)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공 동 체 소 식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Generation to Generation Campaign’ ‘세대에서 세대로 기금 모금’		『 우리들의 정성 』	
시카고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세대에서 세대로’의 기금모금에 교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교우들께 배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납부한 금액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수표를 쓸 때 수취인을 G2G 혹은 G to G 로 쓰십시오. 본당 목표: \$440,000.00 (5년 동안) ▪ 7월31일 현재 약정액: \$171,800.00(19가정)		▪교무금 이치섭(바오로), 이옥희(엘리사벳), 고 연(요한), 주영재(요한), 김정자(엘리사벳), 박병규(아거스틴), 이춘자(희순루시아), 박경철(레오), 김태수(토마스), 전행자(루갈다), 정인선(요한), 윤영란(도로테아), 김정욱(에스더), 정행자(세실리아), 강점마, 모기화(카타리나), 박유자(요안나), 허 은(안드레아), 김클로틸다 이승자(테오도라), 박춘자(아가다), 김종휘(루카), 권상웅(요한), 황정용(보스코), 강정환(유스티노), 김영일(미카엘) 탐 박(토마스), 김정우(바오로), 이춘재(엘리사벳), 오명희(마리아), 이대수(안토니오), 장기섭(토마스), 이문규(라파엘), 여재동(베드로), 이종금(폴리나), 제이슨박(야고보), 김종루(라우렌시오), 김명수(토마스), 최수지(소화데레사), 민광홍(미카엘), 김동진(가롤로), 한명수(아오스딩 마리아) 최정자(카타리나), ○교무금 \$ 6,295.00 ○주일헌금 \$ 1,822.00 ○감사헌금 \$ 3,200.00 ○토요헌금 \$ 35.00 ○성물방입금 \$ 95.00 ▪ 감사헌금: 오주영(카타리나)가정, 고연(요한), 김정자(엘리사벳), 김영일(미카엘)	
◎8월 15일(토)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복되신 성자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경축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시간: 저녁 7시 30분 (6시 청년미사는 없습니다)		『 2026년 8월 9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김앤디(안드레아), 지석철(스테파노), 이영희(글라라), 유명주(마가렛), 엄광식(토마스), 박준우(마태오), 정은욱(로사), 정원준(크리스), 정서령(쥬디), 김태준(에릭), 김유미 ■ 연미사 이궁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꼴라따), 배안나, 이선애(마틸다), 정순분(수산나), 김희경(요안나), 주영선(소피아), 음규진(요셉),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김성애(마리안나), 김진봉(베드로), 김종훈(그레고리오) 8월 11일(화): Sr. 배은정(요안나), 이양연,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꼴라따), 김순열(카타리나), 김성애(마리안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김종훈(그레고리오) (연미사) 8월 12일(수)~8월 15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연미사) 8월 14일(금): 주영선(소피아) (연미사)	
◎하반기 본당 주요행사 안내 ▶본당의 날: 9월 20일 ▶추석미사: 9월 25일 ▶선교바자회: 10월 18일 ▶추수감사절: 11월 22일 ▶본당 연말파티: 11월 29일 ▶성탄대축일: 12월 25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2027년 1월 1일		◎Fr. 단 웨버(Donald Webber) 영적꽃다발 안내 9월 6일, 80회 생신을 맞으시는 단 웨버 신부님을 위해 하느님 은총과 평화 가운데 건강하시도록 ‘영적꽃다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수거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꼬미시움 ▶일시: 8월 16일(일) 오후 12시30분 신관1호 ◎8월 야외 울뜨레아 ▶일시: 8월 23일(일) 오전 11시30분-여재동베드로택 2414 Indian Ridge Dr. Glemview IL 60026 ◎2026년 어린이 복사단 피정안내 ▶일시: 8월 22일 오전 10시~오후 4시 (본당) ▶대상: 복사단 어린이 및 청소년 ▶문의: 표혜진(kmckkoreanschool@gmail.com) ◎2026-2027 주일학교(CCD), 한국학교 학생모집 ▶일정: 2026년 9월 13일 ~ 2027년 5월 2일 ▶주일학교(CCD): 매주 일요일 오전 9:20 ~10:30 ▶한국학교: 오후 12:30 ~ 2:30 ▶문의 및 등록: 성당 사무실, 표혜진 (kmckkoreanschool@gmail.com)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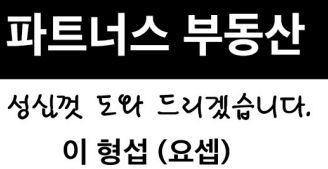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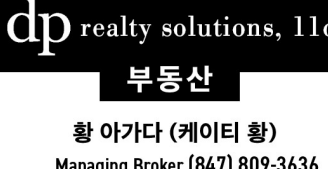
파트너스 부동산
성실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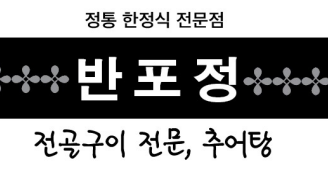
배 페인링
배 흥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라저스팍 꽃집
정 재숙 (모니카)
(773) 761-3500
1415 W. Morse Ave, Chicago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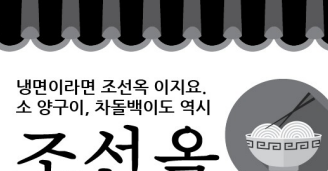
반포정
전공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atom
최 켜마
(847) 414-0863



Michael Zyung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조선옥
냉면이라면 조선옥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박이도 역시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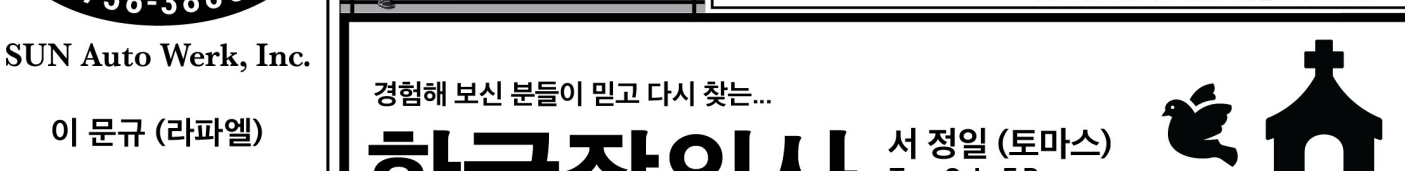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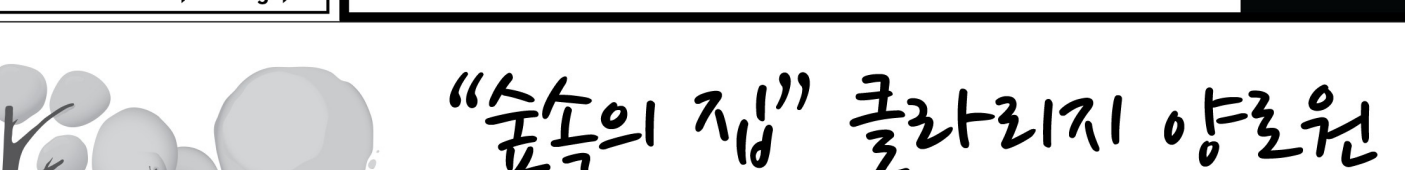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ago, IL 60614
312.929.9069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젼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i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한국장 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숲속의 집” 클라리지 양로원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www.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C (773) 941-2648

2026 년 8 월 9 일 연중 제 19 주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열왕기 상 19,9-11-13

◎ 화답송



주 님, 저 희 에 게 자 - 비 와 구 원 을 베풀 어 주 소 서.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 로마서 9,1-5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 복음 마태오 14,22-33
◎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16 봉헌성가 213,215
성체성가 163 파견성가 69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